

대자연이 사업 business activity 을 한다면

녹색연합
후원과 협력 안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생명을 위해,
이 땅을 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천과 변화를 기다립니다.
녹색연합이 자연과 환경의 이름을 빌어 제안하는
‘내일을 향한 사업’,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I. 후원과 협력 요청에 앞서

- 1 | 이 땅의 생물들이 브랜딩을 한다면
- 2 | 환경과 사람이 마케팅을 한다면
- 3 |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곳에서 프로모션을 한다면
- 4 |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한다면

II. 녹색연합 소개

III. 녹색연합 활동

- 1 | 생물다양성
- 2 | 평화와 생태
- 3 | 생활 환경
- 4 | 기후 에너지

IV. 협력과 후원 안내

종이에 인쇄한 '후원과 협력 안내서'와
후원약정서를 원하는 분은
녹색연합으로 연락주십시오.
fund@greenkorea.org 02-747-8500

이 땅을 둘러싼 대자연이 사업을 하고
이 땅이 시장이며
이 땅의 생명이 고객이라면

business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진정한 가치를 남기는 걸까요.

녹색연합이
함께하고 싶은 세상과 사람들, 기업의 생각에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으로
후원과 협력을 위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백두대간의 다양한 생물들이 모여
브랜딩^{branding}을
한다면

branding

삶.

이보다 더 단순하고 명확한 브랜드가 있을까요.

사람이 귀한 것은 '생명'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충분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물과 그 삶의 터전을 존중하는 것은

'삶'이라는 브랜드 아래서

생명을 얻고 생활을 누리는 사람,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환경과 사람이 힘을 합쳐 마케팅^{marketing}을 한다면

marketing

이유있는 불편, 까닭있는 절제를 전략으로 삼을 겁니다.

관심과 참여야 말로 '생명'이라는 브랜드를 이끄는 힘, 마케팅이 되어줄 겁니다.

일상에서는 미세먼지로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일터에서는 오염물질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앞선 노력, 개인의 의미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상징이면서 가치있는 곳에서
프로모션^{promotion}을
한다면

promotion
promotion

경계를 가르는 곳. 금지된 곳.
그래서 스스로 지켜진 곳
비무장지대 DMZ(Demilitarized Zone)

전쟁 이후 세대인 우리에게 분단과 단절은 무감각해진 상처입니다.
새들이 경계없이 날마다 남북을 오가며 노래하듯이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는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생태와 평화가 교차되는 이 곳에 마음의 무장까지 해제하고 오십시오.

모두, 바로 지금, 더불어 할 수 있는
캠페인 campaign 을
한다면

campaign
campaign

구상나무가 사라져가는 한라산과
CO₂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땅,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구 위 '기후악당,' '매우 불충분'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 대책.
생활과 산업의 변화, 약속, 실천만이 필요합니다.

녹색연합,
큰 주목받는 분야보다
꼭 주목해야 하는 곳에서
활동해왔습니다.

with us

사단법인 녹색연합은 1991년에 창립한 시민환경단체입니다.

한반도의 건강한 생태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전국 약 1만5천 명의 후원회원과 40여 명의 활동가가 함께
환경현장 중심의 조사, 연구와 생태교육을 펼칩니다.

교육, 법률, 정책, 출판 4개 영역의 독립된 전문기구

[녹색교육센터], [녹색법률센터], [녹색사회연구소], [작은것이아름답다]와 전국 9개의 지역조직이 함께 합니다.

녹색연합,
힘있게 그러나
가깝게
더 나은 삶을 돕겠습니다.

with you

녹색연합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비폭력 평화의 실현, 녹색자치의 실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과 함께 환경파괴 현장부터
백두대간, DMZ 일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있는 생태현장,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쓰레기, 에너지 문제같은 일상의 환경 현장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우리 삶을 바꿔갑니다.

1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듭니다.

사육곰 구출 캠페인
멸종위기 산양 보호
로드킬 제로 캠페인
생명의 이동권 캠페인
가리왕산 숲 복원
4대강 복원
백두대간 보전

- ✓ 웅담 채취용 반달가슴곰 구출과 곰 사육 정책 폐지 활동
- ✓ 울진 삼척 지역 멸종위기 산양 보호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
- ✓ 로드킬,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물고기 이동권 등 '생명의 이동권 캠페인'
- ✓ 가리왕산 훼손지 생태복원을 위한 활동
- ✓ 4대강의 불필요한 보 해체와 재자연화 추진
- ✓ 백두대간 보호구역 관리방안 마련과 바람직한 탐방문화 캠페인



웅담채취를 목적으로 좁은 철창에서 사육되는 곰이 520여 마리나 남아있습니다.



울진 삼척 봉화 지역에 사는 멸종위기종 산양의 삶을 지원합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길을 위한 로드킬 제로 캠페인

생물다양성



8일의 올림픽 경기를 위해 베어낸 500년 숲, 가리왕산을 본래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설치된 공주보. 4대강은 다시 흘러야 합니다.



넘쳐나는 이용자와 관리 부실로 뿌리가 다 드러난 채 훼손된 백두대간을 모니터링합니다.

2

평화와 생태

평화와 생태는
나란히, 더불어 가야 합니다.

비무장지대 DMZ 보전
DMZ 평화생태
반환 미군 기지 환경 오염 대응
군기지 환경문제 대응

- ✓ 평화협정 이후 지속가능한 비무장지대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
- ✓ 국내 지뢰 지대 현장 조사 후 한국형 지뢰제거 기준 제안
- ✓ 주민과 함께 만드는 DMZ 일원 평화 생태 탐방
- ✓ 용산 미군기지를 안전한 숲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
- ✓ 군 사격장 소음, 생태 훼손, 토양오염 등 군기지 환경문제 대응과 주민 지원 활동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생태축 DM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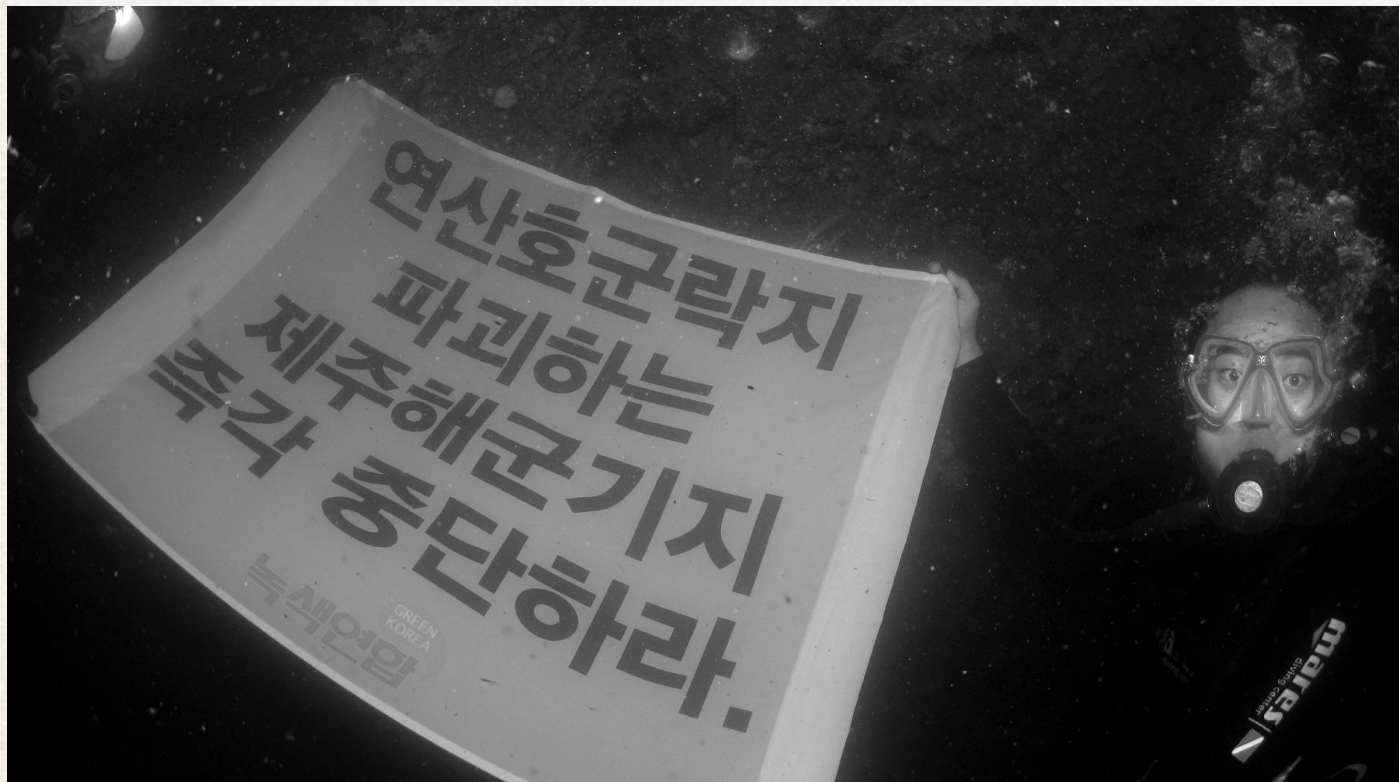


DMZ는 총 5,9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한반도는 단위면적당 지뢰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평화의 DMZ를 위해 지뢰제거가 우선입니다.

평화와 생태



연산호 모니터링으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 전과 후의 제주 바다 생태계를 기록합니다.



미군이 떠난 용산 기지, 반환 미군기지 오염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군 사격장 주변 갯벌에서 발견된 탄피. 주민들은 소음과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를 호소합니다.

3

생활 환경

삶과 삶터를 바꾸는 운동이
우리과 지구를 살립니다.

미세먼지 대책수립
유해화학물질 감시와 모니터링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 ✓ 미세먼지, 대기오염 피해 현황 조사와 정책 대응
- ✓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환경민원 지원 활동
-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정책 대응
- ✓ 재사용품 사용 문화 확대와 재사용 관련 정책 마련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발전을 멈추는 일입니다.



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단은 내가 사는 동네의 미세먼지를 직접 조사하고 발생요인을 확인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은 인허가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 환경



이물질이 있거나 복합재질로 분리배출한 쓰레기 중 겨우 절반만이 재활용됩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 바다 곳곳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8백만톤에 달합니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정책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activity

4

기후 에너지

기후위기를 막는 첫 행동은
에너지전환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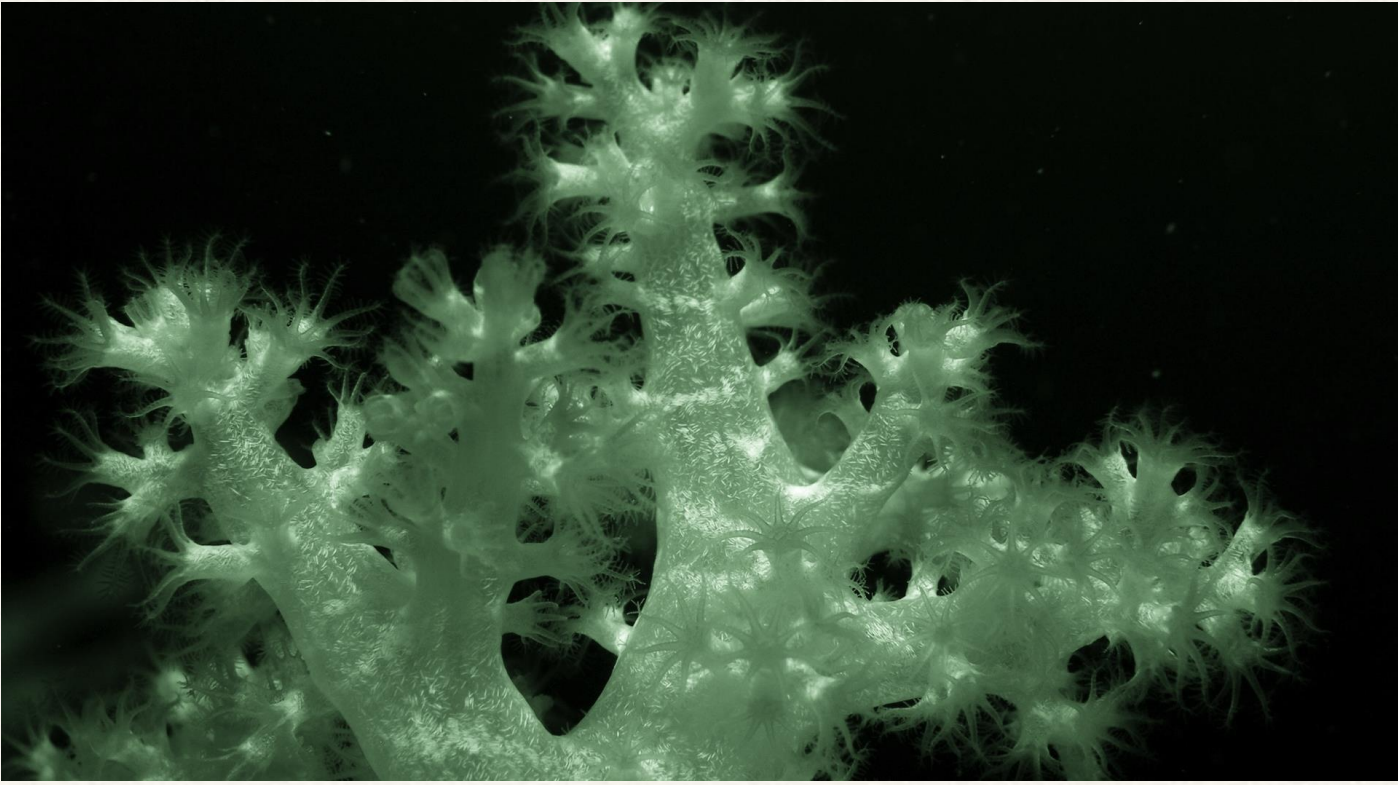
- ✓ 백두대간 고산 침엽수 모니터링
- ✓ 제주 바다 연산호 모니터링
- ✓ 1.5°C 제한을 위한 탈석탄화력 캠페인과 정책 대응
- ✓ 기후변화와 에너지 시민 교육



마치 뼈를 드러내듯 하얗게 죽어 있는 고산침엽수. 겨울가뭄, 봄 더위, 여름 폭염 같은 이상기후에 의한 생육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하나의 종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겉에서 지켜보고, 기후변화가 자연에 미치는 위협을 기록합니다.



기후변화, 해양오염, 개발사업은 제주 앞 바다 연산호 정원을 직접 위협합니다.

기후 에너지



참혹했던 후쿠시마 핵사고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핵사고에 과거란 없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화력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태양과 바람에서 얻은 안전한 에너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발전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입니다.

후원을 부탁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자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ogether

녹색연합은 이런 협력자를 기다립니다

지구에 이로운 방식을 찾아 더 높은 성장보다 더 나은 삶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벤트 홍보보다 환경문제의 답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1회성보다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협력의 성과를 나누고 서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파트너로서 명예를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변화, 그러므로 더 확실한 약속

녹색연합은 가장 먼저 현장을 찾고, 가장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과 일상을 사는 시민이 내일의 주체가 됩니다.
절실한 고민과 발로 뛰는 실천으로 삶이 바뀌는 대안을 만듭니다.

후원과 협력 방법

재정후원

법인과 임직원의 정기 후원회원 가입
관심있는 활동을 지정하여 기금후원
창립기념행사 축하기금후원
물품후원

공동사업

상품수익 후원을 위한 마케팅 연계 캠페인
시민 환경 캠페인
환경캠프, 생태기행 등 참여형 프로그램
생태와 환경주제 강연과 교육

to-do

녹색연합의 의무

사업의 목표와 후원금의 용도를 진실하게 밝히고 협력하겠습니다.

협약식을 통해 협력내용을 알리고, 약속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히 활동하겠습니다.

활동보고서로 녹색연합 활동의 경과와 성과를 나누겠습니다.

후원금은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녹색연합은 회계담당자를 두고 재정운영내규에 따라 기금을 기금을 집행합니다.

또한 회계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공개되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15%는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재정후원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녹색연합 후원을 증빙합니다.

녹색연합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녹색연합 녹색이음팀 fund@greenkorea.org 02-747-8500

후원계좌

하나은행 187-910002-89304 (예금주 : 사단법인 녹색연합)

대자연이 사업 business activity 을 한다면

녹색연합
후원과 협력 안내서

종이에 인쇄한 '후원과 협력 안내서'와
후원약정서를 원하는 분은
녹색연합으로 연락주십시오.
fund@greenkorea.org

02879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성북동 113-34)
대표전화 : 02-747-8500
회원전용 : 02-745-5001~2
팩스 : 02-766-4180
대표메일 : greenkorea@greenkorea.org